

건강 칼럼

급증하는 망막박리 환자, 조기 진단 위해 안과 검진은 필수

최근 망막박리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망막박리로 안과를 찾은 환자는 9만7045명으로 10년 전인 2010년에 비해 82.6%나 증가했다. 연령대로는 40~60대 이상이 많았지만 20대 환자도 1만2503명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숫자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년층에서 망막박리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 층에서의 망막박리 환자 증가는 장시간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사용에 따른 고도 근시의 증가와 관련 있다고 보고 있다.

망막은 눈 안쪽에 있는 카메라의 필름과 같은 부분이며, 망막이 망가지면 시력과 시야에 문제가 생긴다. 망막박리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응급질환이다.

망막박리는 원인에 따라서 열공성, 견인성, 삼출성 세 가지로 분류한다.

망막박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열공성망막박리는 망막전층에



김삼영

첫눈에인과의원 대표원장

열공, 즉 구멍이 생겨 역화된 유리체가 망막신경과 망막색소상피 사이로 들어가 망막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견인성 망막박리는 당뇨망막병증이나 포도막염 등 망막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서 나타난다. 망막에 생긴 단단한 섬유 조직이 망막을 당겨서 발생한다. 삼출성 망막박리는 망막의 순환 기능이 떨어져 구멍 없이도 망막 사이에 액체가 쌓여 층이 떨어지는 것이다.

눈 앞에 점이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듯한 '비문증', 빛이 번쩍거리는 것 같은 '광시증' 등은 망막열공이나 박리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하므로 이러한 증

상이 지속된다면 신속하게 안과를 방문하여 정밀검사를 받게 좋다.

특히, 광시증은 망막열공이 발생한 경우 더욱 심해지므로 광시증이 악화되면 망막열공의 발생을 의심하여야 한다. 광시증은 주로 망막열공 또는 망막박리가 발생한 위치와 관계없이 주로 바깥쪽 시야에 나타난다. 망막박리가 진행되면 검은 커튼이 드리운 듯하게 서서히 중앙쪽으로 진행하며, 망막박리의 위치와 반대방향의 시야장애를 호소하며, 중심시력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

열공 망막박리 환자 중 매우 초기 단계이거나, 광음고 레이저

치료로 방책을 만들어 구멍 주위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수술하지 않으면 실명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견인성 망막박리는 유리체절제술로 유리체와 섬유 조직을 제거해 망막을 유착시키는 치료를 한다. 삼출성 망막박리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 모두 고려할 수 있다.

망막박리 수술로 망막의 떨어진 층을 붙인 후 시력이 돌아오는 정도는 망막이 떨어진 정도와 시간 등에 따라 차이가 크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만성적 망막박리는 수술로 망막을 다시 유착시키더라도 기능이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알려졌다. 망막박리된 기간이 길수록 수술 후 재유착 성공률이 떨어지고 시력 회복도 제한적이다.

이처럼 망막박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완치가 어렵고, 시력 손실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으면서 꾸준히 관찰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설

공중민화 이현숙 작가

공중 민화작가 이현숙 제7회 개인전이 최근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정목갤러리'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그는 대한황실 명인, 황실화화 공중장식화 이수자이다.

대한민국 전통 미술대전 종합 대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민화는 조선 후기 백성들에 의해 그려진 순수생활 실용성 그림이다.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벽사'와 복을 불러주는 '길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건강, 장수, 다산, 부귀, 영화 등의 꿈과 소망을 담은 민중들의 그림이다. 이현숙 작가는 예뻐 박수화 선생으로부터 사사했다. 박수화 선생은 한국 민화 1세대로서 창조적 민화 세계의 지평을 열었다.

이현숙 작가는 공중회화와 민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번 전시회에서 진하도와 평양감사 행렬도, 공중장식화 등 일월오봉도, 금강산도를 비롯해 미인도와 화조도까지 다

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진하도는 나리에 경사가 있을 때 벼슬아치들이 조정에 모여 왕에게 축하를 올리던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전시장은 신분을 초월하여 문화와 예술 그리고 삶에서 우러난 다양한 형상과 깊고 중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평을 받았다.

한편 이현숙 작가는 지난 2018년 4월 전주시 덕진구청에서 운영한 덕진갤러리에서도 개인전을 열었다. 당시 작품 전시회는 '찾아가는 갤러리'라는 이름으로 일반인이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민화를 지역 주민이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민화는 우리 전통의 고유한 느낌과 정서를 담아낸 전통 미술 작품이다. 조선 후기 이후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담아내면서 우리의 민족 정서를 충실하게 대변해왔다. 이현숙 작가는 공중민화의 한 걸음을 꾸준히 걸어왔다. 최고의 공중민화 작가가 되기를 기원한다.

정운천 의원 '탄소 전도사'로 존재감 과시

전라북도 탄소 산업 육성에 앞장서온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국정감사에서 '탄소 전도사'로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국내 탄소 산업 발전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탄소 산업은 우주항공 산업은 물론 친환경,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에서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간 기업이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오고 있다.

특히 친환경·스마트 패러다임에 맞춰 모빌리티(전기차, PAV 등) 및 그린에너지의 성장이 예상된다.

2017년 정 의원은 전라북도에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여야 법사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3년에 걸친 노력 끝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국가 출연금에 관한 사항은 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한정하고 있다. 탄소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을 사업 출연금이 아닌 기관 운영 출연금 가운데 일부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탄소 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투자 축진은 물론 시장 창출, 핵심 기술 개발, 기반 조성 등의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탄소 산업을 이끌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은 정부와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의 지원과 제도의 개선이 없는 국내 탄소산업의 발전도 없다.

탄소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잘 정비되어야 한다. 탄소 산업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 및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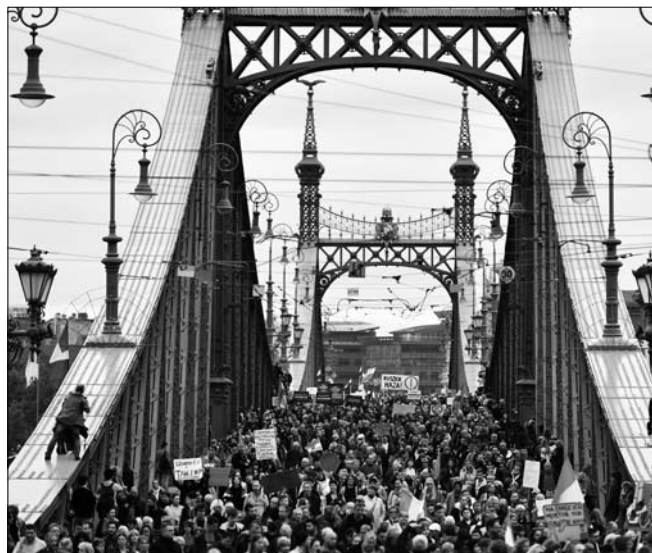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놀이터가 사라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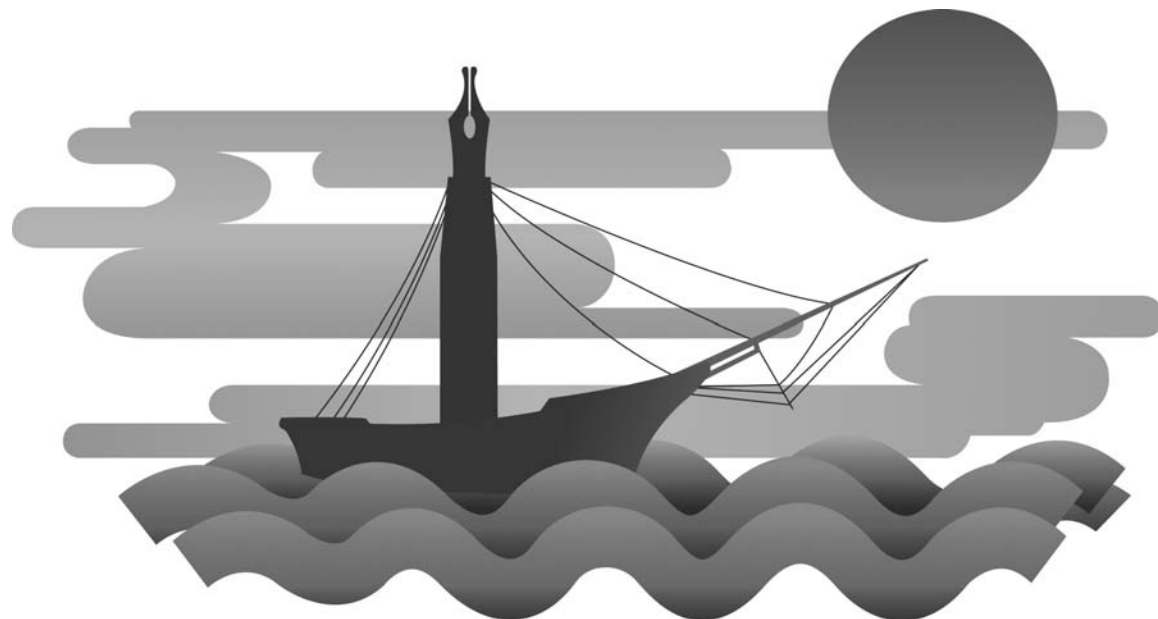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에서 한 소녀가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집 앞 파괴된 놀이터에서 있다. 이 소녀는 어린 시절을 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며 보냈으며 아쉬워했다.

헝가리 혁명 66주년, 자유의 다리 모인 시위대



헝가리 혁명 66주년 기념일인 23일(현지시간) 부다페스트 자유의 다리에 일광 인상과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요구하는 학생 및 교사들과 연대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들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